부산남구신문

구 정 목 표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
Change More Namgu
■ 미래를 향한 도시기반 구축
■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
■ 문화가 충만한 관광도시 조성
■ 구민을 섬기는 열린행정 실천

2010년 9월 27일 월요일 (음력 8월 20일) 제176호

오륙도, '해파랑길' 시발점으로 지정

〈국내 최장 동해안 탐방로〉

해맞이 공원 조성 사업 청신호… 정부에 예산 지원 건의

국가명승 제24호인 오륙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첫 시발점으로 지정돼 구가 추진하고 있는 '오륙도 해맞이 공원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륙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의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첫 시발점으로 지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광부는 지난 15일 동해의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걷는 국내 최장거리 탐방로인 '해파랑길'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그 시발점으로 오륙도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가 전국제일의 찾고 싶은 명소로 추진 중에 있는 '오륙도 해맞이 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청장은 이날 열린 발표회장에서 문광부 조현재 관광산업국장에게 '오륙도 해맞이 공원 조성사업계획'을 건의하고 200억원의 사업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는 국가명승 제24호인 오륙도는 부산의 상징이며 동해와 남해의 경계 기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오륙도 일원에 해맞이 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앞으로 이곳에 일제 강점기 때 구축된 지하 포진지를 복원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환경친화적인 편의시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조경시설을 갖춘 전국 제일의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가꿔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파랑길은 명칭공모를 통해 확정된 동해안 트레일(탐방로)의 새이름으로 부산 오륙도에서 출발,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까지의 동해안 해안길과 숲길, 마을길, 해안도로 등 688㎞를 끊이지 않게 선형으로 잇는 국내 최장거리 탐방로이다.

문광부는 이 구간에 4개의 테마로 나눠 2014년까지 17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적이면서 이야기가 있는 길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구청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파랑길 첫 시발점으로 부산의 상징이자 남구의 자랑인 오륙도가 지정돼 기쁘다"며 "구가 추진하고 있는 해맞이 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으로 지역 특색이 살아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암동 도시숲 조성사업 10월 준공식

공동묘지 주민휴식공간으로 탈바꿈

우암동 공동묘지를 녹지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우암동 도시숲 조성사업이 마침내 준공됐다.

남구는 지난 15일 2만3,079㎡의 우암동 127-142번지 일원 공동묘지에 모두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녹색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달 초 준공식을 열 예정이다.

도심 내 혐오지역이던 이곳이 조경·편의시설을 갖추고 5만 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진 녹색공간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이번에 조성된 도시숲에는 파고라 2동과 황톳길 산책로, 벤치, 광장 등 주민휴식·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도심내 공동묘지로 인한 주택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7년 3월 정부로부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 시범마을로 선정되면서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후 구는 2009년 토지소유자인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모두 496기의 묘지 이전을 위한 보상을 시작해 2009년 말 묘지 보상을 마무리 지었다. 올해 3월에는 주민 설명회를 거쳐 조성 설계를 완료하고 5월 공사에 들어가 착공 4개월 만에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

도시숲 사업이 완료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됨은 물론 방치된 국유지를 숲으로 조성해 주민웰빙 공간으로 거듭나 이곳이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우암동 공동묘지는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이후 무분별하게 분묘가 들어선 곳으로 그동안 무단경작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도심 환경을 크게 해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0 부산평생학습축제'가 10월29일과 30일 이틀간 부경대학교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607-4512

남구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최우수 등급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서… 국비 1억원 지원받아

정보지식인 대회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도

남구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최고 평가를 받아 국비 1억원을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3일 2009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평가에서 전국 10개 지원센터 중 남구를 A등급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09년 9월 사업 시행 이후 1년 동안의 사업과 주민,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 평가한 것으로 A·B·C등급으로 나눠 국비가 차등 지원된다.

부산남구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남구와 남부교육청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매우 활발하고 5개 대학교를 활용한 놀토 프로그램을 운영, 자라나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소질을 계발하는 데 힘써온 점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구는 2011년 8월까지 국비 1억원과 자체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또 지난달 13일 동의과학대학 미래관에서 열린 2010년도 부산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해냈다.

부산시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 모두 4명이 참가한 남구는 정보화 정책 능력과 정보화 종합 지식 등의 평가 분야에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

남구도서관 정호진씨는 개인 우수상을 재무과 서정욱씨는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도 구는 2010년 상반기 16개 구·군 물가안정관리 시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에서도 장려에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알림

보건소 독감예방접종 실시합니다

□ **접종일시** : 2010년 10월 중~약품소진 시 까지 (09 : 00~16 : 00)
□ **접종장소** : 구청 1층 대강당
□ **접종대상자** : 주민등록증 상 남구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무료접종대상자 :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70세 이상(1941년생까지),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본인
▷지참물 : 의료급여증(1,2종),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1~3급), 국가유공자증
▷접종방법 : 동별 분산접종
○ 유료접종대상자 : 65세~69세노인, 3세이상기초 생활1-2급수급권자
▷지참물 :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접종방법 : 무료접종 완료 후 연령별 분산접종
※ 약품 조기 소진시 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접종을 꼭 하셔야 할 분은 병·의원에서 미리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은 전문의와 상담 후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접종일정은 확정 시 홍보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남구보건소 대표번호(☎607-6460)

'가덕도'가 신공항으로 최적

안전하고 24시간 운영가능 경제성도 뛰어나

부산 가덕도 해안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사업의 최적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유력후보지로 부산가덕도 해안과 밀양 하남내륙이 거론되고 있는데 입지여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덕도가 동북아 제2허브공항으로 타당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가덕도는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아 안전하고 항공소음영향권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24시간 공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부산신항과 인접해 있어 복합운송물류 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남해안권에 집적된 산업단지와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부산신항과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들로 인해 신항배후철도, 거가대교 등 도로와 철도시설이 완비돼 있어 접근성 또한 뛰어난 점도 가덕도 대세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공항건설비도 밀양에 비해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용역 결과 가덕도는 9.8조원인데 반해 밀양은 10.3조원으로 5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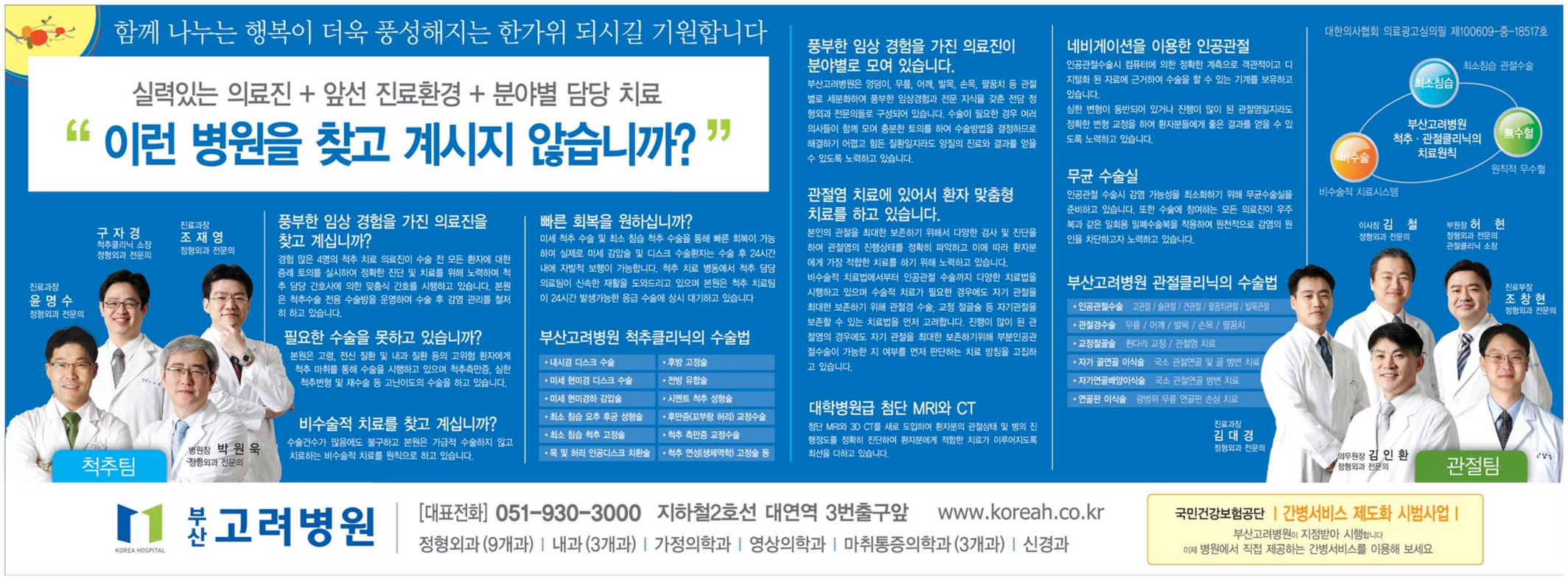
이와 같이 부산의 가덕도 해안은 공항의 당초 건설목적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경제성, 항공소음 피해 없이 24시간 공항을 운영할 수 있는 신공항의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반해 밀양 하남내륙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무려 16개 이상의 산봉우리를 잘라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잘려나가야 하는 산 중에는 풍광이 수려하고 역사가 깃든 무척산과 봉화산 등 김해지역의 명산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관련 문중이나 축산업자들의 극렬한 반대민원이 예상된다.

전문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설령 산봉우리를 잘라낸다고 해도 5억㎥에 달하는 토사는 덤프트럭 5천만대 분량으로 하루 1천대씩을 동원할 경우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은 세계 5위의 항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공항이 없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90년대부터 김해공항을 대체하는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 결과 현정부 들어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이라는 명칭으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반영돼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 이래서 가덕도가 최적지

구분	가덕도 해안	밀양 내륙
공사비	9.8조원	10.3조원
연간 안개일수	11일	32일
항공소음 피해 주민	0	5,770 가구
24시간 운영	가능	불가능
운항 장애물 (절취 대상 산봉우리)	0	16개
녹지훼손 (산 절취, 도로개설)	0	993만㎡ (여의도 면적 1.2배)
농지훼손 (활주로 건설)	0	1천만㎡
장래 확장 가능성	가능	불가(민원발생)
기타	부산신항과 인접국토확장 김해공항 한계 극복	항만과 원거리국토잠식 김해공항보다 여건 더 열악